

의과대학 이빨 어떤 곳 입가 ????

이 순 형

의예과 교육의 문제점

3. 의예과 제도

의과대학에는 다른 대학과 달리 예과(豫科)과정이 있다.

의예과란 의학을 배우기 위한 기초학문을 익혀야 하고, 그 보다 더 중요한 의의는 장차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과 교양을 도야하는데 있다. 그래서 다른 대학보다 2년이란 더 긴 세월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다.

의예과에서 의학을 배우는데 필요한 기초과목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P.B.C라 하여 물리학(Physics), 생물학(Biology), 화학(chemistry)이 있다. 그리고 교양과목으로는 국어, 제1외국어, 제2외국어, 라틴어, 철학, 역사, 사회학 개론 같은 것이 주류를 이룬다.

이런 과목들의 조합으로 2년간의 예과 과정 시간표는 짝짜여 있고 거의 모든 과목이 필수로 되어있어 대학이라기 보다는 고등학교 같은 인상을 풍긴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의예과는 학점제가 아닌 학년제를 채택하고 있어 어느 한 과목이라도 낙제점수를 받으면 한 학년을 유급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실제로 필자의 동급생가운데서 의예과의 국어 한 과목으로 인하여 10%가 낙제를 하였었다.

의예과 교과과목의 성격상 의예과를 문리대 또는 자연대에 소속시키는 대학도 있고, 소속은 의과대학이나 그 교육을 이들 대학에 위탁하는 학교도 있다.

미국같은 나라에서는 아예 의예과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이과계통의 대학을 줄



업한 사람들이 입학하도록, 말하자면 의과대학을 대학원 과정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더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의과대학의 학사편입은 거의 허락되지 않는 실정이다.

요즘 대학에 따라서는 의예과 과정을 단축하고 일찍부터 의학을 가르치는 곳이 많은데 이런 경향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도 인강이 기계화, 사무적으로 되어가는 마당에 일찍부터 전문지식만을 가르치기 보다는 인성교육, 교양교육을 강화하여 사람으로 만든 뒤에 의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4. 의예과 생활

모든 의과대학 교수들이나 선배들은 이 귀중한 의예과 시기에 교양의 폭을 넓히

고 인생을 배우며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 생활을 잘 설계하라고 충고를 한다. 이런 뜻에서 의예과가 의과대학에 소속되기 보다는 문리대나 자연대 같이 다양한 학과와 다양한 강좌가 있는 대학에 소속되는 것이 좋다.

우선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마음껏 맛볼 수도 있고, 듣고 싶은 명교수의 명강의를 수강하거나 심지어 도강하기에도 안성맞춤이며 또 다른 과의 괴짜 친구들과 사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너무 자유분방한 나머지 강의가 불규칙하고 무상하기 이를데 없어, 자칫 고등학교에서 길들인 규칙적 생활이 무절제한 생활로 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혼돈을 통하여 학생들은 피동적 타성

에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대학생활을 배우게 되기도 한다.

언제부터 유래한 전통인지는 모르겠으나 성공적인 의예과 생활의 세가지 요체로서 공부하는 것 (Studieren), 사랑을 하는 것 (Lieben), 그리고 술마시는 것 (Trinken)을 꼽는 것이 통설이 되어왔는데 그만 그 순서를 거꾸로 알고 실행에 옮기는 바람에 술과 연애부터 알게되어 낙제를 하거나 공부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었다.

뜻을 같이하는 친구들끼리 모여 독서회를 조직하거나 과외활동을 함께 하면서 인생과 세계를 논하는 것도 이 시절이며, 그래서 친해진 친구가 후일에도 가장 가까운 지기로 남게 되는 것 같다. 그러나 요즘은 행여나 학생들이 써어클에 가입하여 이상한 방향으로 탈선을 하지 않을까 학부모나 대학당국이 똑같이 걱정부터 하게 되는 세대가 되었다. 지금에 비하면 6·25의 전화후 을씨년스런 분위기에서 보낸 의예과 생활도 낭만시대였다는 느낌이 들고 옛고향같이 그림기만 하다.

의예과생활을 통해서 어렵풋하게나마 학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타행위가 주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알게되고, 시간과 젊음을 어떻게 마름질하여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다. 나아가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확립되는 시기이며, 이상을 추구하면서 장애에 무엇을 하겠다는 집념을 굳히는 시기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2년간이란 짧은 시일이지만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주요시기임이 분명

하다.

5. 의예과 교육의 문제점

이렇듯 중요한 과정인 의예과도 그 과도적 성격상 대부분의 대학에서 의붓자식같은 대접을 받는 수가 많다. 의과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에 소속된 의예과의 경우 그 대학에 소속된 다른 학과가 적자인 셈이고 의예과는 서자가 된다. 그래서 2년간이라는 소정의 교육만 받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련없이 훌훌 떠나 버리게 마련이다. 의예과 학생들도 다른 대학교수들을 의과대학교수같이 여기지 않는데 더 문제가 있다.

이런 경향은 의예과가 의과대학에 소속된 경우에 더욱 심한 듯 하다. 기초교양과목 선생님들이 의대에 소속된 전임교수인 경우보다는 외래교수가 되는 때가 많아 언제나 손님같다. 이런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통상 의예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의예과의 모든 문제를 협의하는 대학이 많으나, 어느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깊이 관여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가딱 지나치게 나가다가는 상대방 대학에 대한 간섭이 되기 때문에 적극개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의예과교육은 언제나 완충지대에 놓이게 되고 자칫 방임될 우려마저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대학에 있어서나 의예과 학생들이 가장 우수한 것이 현실인데, 이런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놓고는 철저하게 교육을 못하는 험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다. 그래 일부 의과대학에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초과목 시간을 두 학기나 세 학기로 단축하고 나머지 한 학기나 두 학기

기생충이 건강을 좀먹는다

싱싱한 푸성귀가 밥상에 오르는 계절. 가정주부들은 가정의 건강을 위해 기생충에 신경을 써야겠다.

봄철 채소를 즐기고 나서 기생충이 자라는데 필요한 기간 (3, 4개월)이 지난 뒤에 검사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기생충 감염율이 높게 나타난다. 서울대기생충학 교실의 조사에 따르면 매년 채소를 많이 먹는 시기에서 3, 4개월이 지난 2~4월과 9, 10월에 회충이 가장 많다.

상치, 배추, 무우 등 각종 푸성귀를 통해 인체에 감염되는 기생충은 회충, 십이지장충, 편충, 동양모양선충 등.

기생충은 당장 치명적이지 아니라고 방심하기 십상이지만 아직도 회충, 십이지장충, 요충, 간디스토마 등 각종 기생충 가운데 한가지 이상을 갖고있는 기생충 감염율은 전국평균 40%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82년도 보사부통계에 따르면 어른의 경우 회충이 13%, 편충이 23.4% 등 아직도 높은 감염율을 보이고 있다.

기생충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푸성귀를 깨끗이 씻어야 한다.

배추, 무우, 상치 등 푸성귀를 씻을때는 흙이 많이 묻는 부분인 무우칭이나 배추 뿌리 부근에 특히 신경써야 하고 수도를 틀어 흐르는 물에 3.4차례이상씩 필수로 여러번 씻어야 한다. 세제를 이용해 채소를 씻어야 기생충알이 잘 떨어지고 세제의 냄새가 빠지도록 여러 차례 물에 헹구게되면 효과가 있다는 것. 양념으로 쓰이는 파, 마늘에는 독한 성분이 있어 기생충이 묻었다하더라도 다 죽을 것이라는 생각은 큰 오산이라는 것. 통째로 먹는 딸기는 배추나 상치에 비해 기생충알 오염된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해 씻어야 한다. 김치나 절 절이를 소금에 절이고 맵게 양념하면 기생충이 죽을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다. 참기름을 치면 기생충이 죽는다는 설도 아무 근거가 없다. 기생충 구충약을 복용할 때는 온 가족이 함께 먹어두는게 좋으며 별다른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임신부 생후 1년이 내의 아기·노약자를 제외하고는 따로 처방이 필요없다고 한다.

를 의과대학의 전공 과목으로 대치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생각하기 어렵다. 바람직 하기로는, 의예과 위원회가 관련대학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의예과학생의 입장에서 교과과정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교과목을 확정하고 그 교육을 충실히 시행하는 길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을 줄 믿는다.

어찌되었든 의예과에 들어왔을 때 개구리조차 해부하기를 두려워 하던 학생들이 과정을 마치고 의과대학 본과에 진입을 하면 사람의 시신과 머리칼을 맞대고 비비대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의예과에서 본과로 진입하게 될 때에는 소정의 성적만 취득하면 되고, 입시같은 특별한 시험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필자=서울의대 교수·의박〉